

충북도, 제97회 '어린이날 행사' 다채



2일 충북문화관에서 열린 제97회 어린이날 행사에서 이시중 지사가 아이들과 달리기를 하고 있다.

충북도 · 충북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저소득아동 등 200여명과 행사

충청북도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충북지역본부는 2일 도내 저소득아동 등 200여명이 함께하는 제97회 어린이날 행사를 충북문화관에서 가졌다.

이날 행사는 충청북도가 제97회 어린이날을 기념하여 어려운 환경에서도 바

르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아동들을 격려하고자 개최했다. 아울러, '꿈을 키우는 우리' 오늘은 우리가 주인공!이라는 주제로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하고 색다

른 체험활동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프로그램과 체험활동으로는 도지사와 함께하는 '희망 종이비행기 날리기' 퍼포먼스와 명랑운동회를 비롯하여 신기한 마술공연, 나만의 액자만들기, 새싹머리띠 등과 함께 대형어노래이터를 꾸며,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마련되었다. 이시중 도지사는 "어떠한 어려움에 부딪혀도 좌절하지 않고 이를 이겨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였다. 1일 서울에서 개최된 '어린이날 정부포상 유공자 만찬회'에서는 충북 해능보육원 이경순 원장이 아동복지유공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아울러, 4일과 5일에는 각 시·군별로 어린이를 위한 문화공연, 놀이체험 등 다양한 행사가 개최됐고, 기념식에서 모범어린이 18명, 아동복지유공자 7명이 보건복지부장관 및 충청북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어버이날 기념 '사랑의 점심 나눔'

가정의 달... 중앙공원에서 어르신들 위한 위문공연 · 이 · 미용 봉사로 따뜻한 하루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영석)는 충북사회복지협의회 연합봉사단(나우리회, 스마일 봉사단)과 나눔의 인연 봉우회가 합동으로 '2019년 어버이날 사랑의 점심 나누기'를 5일 청주 중앙공원에서 약 1000여명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사랑의 점심 나누기' 행사 는 매년 지역 내 어르신들을 위한 나눔실천 행사로 무료급식, 어버이날 위문공연 및 이 · 미용 서비스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김영석 회장은 "급식 나눔을 통해 소외된 어르신들이 조금이나마 따뜻한 하루를 보낼 수 있

고, 나눔에 대한 의미를 깊이 생각하며 자원봉사 활동의 홍보 효과를 기대한다"며 "휴일에도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봉사자들의 따뜻한 마음이 진정한 사회복지라 생각하며 이웃 어르신들께 희망의 씨앗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사랑의 점심 나누기' 행사는 충북사회복지협의회 연합봉사단(나우리회, 스마일 봉사단), 나눔의 인연 봉우회, 사단법인 한국가요작가협회 충청북도지회 한국가요사랑예술팀 등 자원봉사자 8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와 연합봉사단은 어버이날을 기념하여 지난 5일 청주중앙공원 일대에서 '사랑의 점심 나누기' 행사를 진행했다.

충북 '고용의 질' 성별 격차 크다

충북여성재단, 청년세대 일자리 진입 · 정착 연구

대졸 취업자 남 69.2 · 여 60.3... '8.9점차' 전국 1위

충북지역 남녀 신규 대졸 취업자의 고용의 질 지수 격차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정착한 4년제 대학 졸업자의 남녀 취업률 격차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충북여성재단이 2016년 졸업한 대졸자 가운데 2017년 9월 기준 충북에 거주하는 1만3천16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충북 청년세대 일자리 진입 및 정착의 성별 격차' 연구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연구 자료에 따르면 도내 청년 대졸 취업자의 고용의 질 지수는 남성 69.2

점, 여성 60.3점으로 성별 격차(8.9점)가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도내 청년 신규 대졸자의 취업률은 75.0%로 나타났다. 남성(79.0%)과 여성(69.2%)의 취업률 격차는 9.8%p로, 전국 17개 시 · 도 가운데 대전(11.0%p)과 충남(10.9%p)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충북의 남성 취업률은 전국 평균(75.4%)보다 높고, 여성 취업률은 전국 평균(73.2%)보다 낮았다. 전국에서 남성 취업률 순위는 5번째로 높았으나, 여성 취업률 순위는 5번째로 낮았다. 남녀 대졸 취업자의 고용형태를 보

면 여성의 경우 60%(2천126명)이 정규직, 40%(1천415명)이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정규직이 77.1%(4천565명), 비정규직이 22.9%(1천353명)였다. 월평균 근로소득은 남성 244만5천 원, 여성 185만1천 원으로 남성 소득 대비 여성 소득 비율은 75.7%로 조사됐다. 사업장 규모에서도 남녀 간 차이를 보였다. 여성은 소규모 사업장에, 남성은 규모가 큰 사업장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았다. 300인 이상 기업에 남성 28.5%가 종사하는 반면 여성은 17.2%에 그쳤다. 신규 대졸 여성 취업자의 15.3%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적응과 관련한 질문에는 여성 24.7%, 남성 13.7%가 어려움을 호소했다. 남성은 업무내용 습득(48.6%)을, 여성은 상사 · 동료와의 관계(45.7%)를 가장 어려운 점으로 꼽았다. 대졸 취업자의 취업 준비과정과 수준을 조사한 항목에서는 전반적으로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취업준비 활동이나 프로그램에 더 많이 참여하고, 졸업 면접과 어학시험에서도 더 높은 점수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청년 신규 대졸자의 대학 졸업 평점은 81.3점이었다. 여성은 83.4점, 도내 남성 79.9점보다 3.5점 높았다. 어학연수 경험을 한 여성(13.1%)은 남성(6.4%)에 비해 두 배가량 많았다. 토익시험 점수 획득 현황을 보면 여성이 774점, 남성이 721점으로 여성이 우세했다. 재단 관계자는 "충북의 전체적인 청년 고용 현황이 지표상으로 상위권에 위치해 있으나 청년세대의 일자리 진입과 정착에 있어 성별격차는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따른 효과가 청년 여성들에게 수혜로 이어지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가 가장 어려운 점으로 꼽았다. 대졸 취업자의 취업 준비과정과 수준을 조사한 항목에서는 전반적으로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취업준비 활동이나 프로그램에 더 많이 참여하고, 졸업 면접과 어학시험에서도 더 높은 점수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청년 신규 대졸자의 대학 졸업 평점은 81.3점이었다. 여성은 83.4점, 도내 남성 79.9점보다 3.5점 높았다. 어학연수 경험을 한 여성(13.1%)은 남성(6.4%)에 비해 두 배가량 많았다. 토익시험 점수 획득 현황을 보면 여성이 774점, 남성이 721점으로 여성이 우세했다. 재단 관계자는 "충북의 전체적인 청년 고용 현황이 지표상으로 상위권에 위치해 있으나 청년세대의 일자리 진입과 정착에 있어 성별격차는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따른 효과가 청년 여성들에게 수혜로 이어지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장애인도 컴퓨터 활용 쉬워진다

기기가 최저32만원~최고550만원, 심사 통해 140명에 보급

충청북도는 신체적 · 경제적으로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상으로 정보화를 통한 사회 통합을 유도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저렴한 가격에 보급할 계획이다. 보급대상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원자 중 1급 내지 7급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이다.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대상자에게 보조기 제품가격의 80%가 지원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장애인수급 급여자) 등 경제적 여건으로 기기 구입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은 기기가격의 90%까지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1일부터 6월 21일까지 신청서 및 활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방문 및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홈페이지(www.at4u.or.kr)를 통해 본인 거주지의 시 · 군 정보화부서(주민등록지 기준)에 제출하여야 한다. 서류평가와 심층상담 등 심사를 거쳐 최종 보급대상자가 선정되고, 8월 2일까지 개인부담금을 납부하면 기기를 보급 받을 수 있다. 보급대상 장비는 시각 장애 유형 50종, 지체 · 뇌병변 유형 25종, 청각 · 언어 유형 28종 등 총 103종이며, 기기별 가격은 최저 32만원부터 최고 550만원 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 관련 자세한 안내는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www.at4u.or.kr)와 충청북도 정보통신과(043-220-2653), 시 · 군 접수처, 콜센터(1588-267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충북도, 다양한 홀몸노인 보호 시책 '눈길'

도내 홀몸노인 75,324명 대상 1인 1개 이상 서비스 제공

2018년 12월 말 충북의 홀몸노인 수는 75,324명으로, 전체 노인인구수 261,763명의 28.8%에 달한다. 이에 충북도에서는 급증하는 노인인구 및 홀몸노인 증가에 맞추어 431억원의 예산을 들여 17개 홀몸노인 보호 시책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전체 사업 수혜대상이 91,462명으로 충북지역 홀몸노인은 1명 당 1개 이상의 서비스를 통해 보호를 받고 있는 셈이다. 이 중에서 충북에서 처음 시작하여 2015년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 '9988 행복키키' 사업은 건강한 노인이 건강

이 불편하여 이웃과 왕래가 적은 노인을 돌보는 사업으로 참여노인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수혜노인에게는 말벗을 만들어 드리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사업으로 평가된다. 체천, 옥천, 영동, 진천, 음성, 단양에서는 농촌지역이 많은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동절기 경로당을 활용해 홀몸노인들이 함께 모여 외로움을 달래고, 합

계 생활하실 수 있는 '공동생활가정'을 운영 중에 있다. 충주시는 '홀몸노인돌봄비'를 25개 읍면동에서 시행중에 있고, 청주와 음성에서는 건강음료를 무료배달하며 어르신들의 건강을 확인하는 '건강음료배달' 사업을 시행한다. 단양군은 저소득 홀몸노인과 공직자 간에 결연을 맺고, 설 · 추석 등 명절과 어버이날에 위문하는 등 '홀몸노인 · 공직자 1:1 결연'을 통해 다가가는 현장 서비스를 실천하고 있다.

청주웰치과
CHEONGJU WELL DENTAL CLINIC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업무협약 지정치과

구강악안면외과 치주과
치과교정과 어린이치과
치과보존과 치과보철과

- 보험임플란트(65세 이상) 전문 치과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직대로 26(북대동) 마이크로병원 B/D 3층 T. 043-278-8100 F. 043-278-8006

충주시,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 준공

1~3급 장애인 이용료 무료

충주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가 지난 4월 30일 준공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행사에는 조길형 시장과 이종배 국회의원, 허영욱 시의회의장을 비롯해 장애인과 자원봉사자 등 600여 명이 참석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어울림 체육 공간 준공을 축하했다.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는 연면적 5599㎡에 지하 1층과 지상 2층 규모로 총사업비 180억원이 투입됐다. 센터는 휠체어용 탄 채로 입수할 수 있는 휠체어 슬로프를 갖춘 장애인 전용레인 등 6레인의 수영장과 유아풀, 장애인을 위한 마사지 기능을 갖춘 스파 풀이 별도로 설치됐다. 특히 중증



충주시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 준공식'에서 조길형 충주시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기념 커팅을 하고 있다.

장애인을 위한 가족 샤워실을 마련해 목욕편의를 돕고 재활치료 목욕 장비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센터 운영에 앞서 모든 시설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으로 불리는 'BF(Barrier Free) 인종' 최우수등급을 획득했다. 장애인과 시

민 이용 편의를 위해 셔틀서비스가 운영 중이며, 1~3급 장애인은 무료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조길형 시장은 이날 "센터 준공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 차별과 벽을 허물고 따뜻한 복지공동체로 거듭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장애인과의 비장애인의 사회통합이 실현된 복지 충주를 잘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주장애인국민체육센터 이용은 충주시설관리공단 ☎ 043-870-7855)으로 문의하면 된다.

충주시, 맞춤형 치매예방 서비스 운영

체계적 인지기능 강화·건강 증진 프로그램

충주시(시장 조길형)가 노인성 치매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고령화 시대에 치매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충주시는 50세 이상의 경증치매 및 치매 발생 가능성이 높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인지기능 향상, 우울증 감소, 자아 존중감 및 생활 만족도 향상을 위한 맞춤형

치매예방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시는 만 50세 이상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중 고령자, 소득기준, 독거 여부를 기준으로 우선 선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비용은 월 16만원으로, 정부 지원금 월 14만4000원에 본인이 월 1만6000원을 부담하며 서비스를 이

용할 수 있다. 맞춤형 치매예방 서비스는 임상 심리사 및 인지관련 자격 소지자 등 전문 자격을 가진 제공인력을 통해 인지기능 강화와 신체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사전·사후 검사도 실시해 어르신들의 인지상태를 세밀히 관찰함으로써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해 준다. 또 개인별 인지능력의 편차를 반영해 뒤떨어진 서비스가 아닌 개별 수준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맞춤형 치매예방 서비스가 반복 활동으로 생활 속

서 자연스럽게 인지건강을 유지하고 집중력과 자존감 등을 향상 시킴으로서 스트레스와 우울감 해소 등 치매예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맞춤형 치매예방 서비스를 통해 치매 발생 요인을 초기에 예방해 건강한 노년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7월경 서비스 이용자를 추가로 모집해, 오는 8월부터 1년 간 맞춤형 치매예방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주시, 우울증환자 치료관리비 지원

소득기준 관계 없이 시민 누구나

청주시가 우울증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는 환자들에게 소득 기준 관계없이 청주시민이면 누

구나 치료관리비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기존에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했다.

이달부터 소득기준 관계없이 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받는 청주시민이면 누구나 우울증환자 치료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비는 실비로 월 최대 2만원(본인부담금)으로 연간 24만원까지이다. 박연숙 상당보건소 지역보건

팀장은 "우울증 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 확대를 통해 우울증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치료시도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청 및 문의는 주민등록 상 주소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청주시, 저소득층 기저귀·분유값 지원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등... 만 2세미만 영아 대상

청주시가 저소득층 영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날

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

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기저귀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보유가구의 만 2세미만 영아이다. 조제분유 지원 대상은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산모의 질병(에이즈,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등) 또는 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 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가정 등이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기저귀(월 6만4천원), 조제분유(월 8만6천원) 구매비용이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

급되며, 오프라인 나들가게 가맹점, 이마트, 롯데마트, 노브랜드, PK마켓 및 온라인 G마켓, 옥션, 우체국쇼핑몰, 삼성카드 쇼핑몰, 롯데 올리브쇼핑몰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신청 기한은 영아 출생 후 만 24개월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며,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실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청주영아돌보관소 지역보건

충북사회복지신문

발행인 김영석 사외이사 최지훈 편집위원 박상준 편집고문 겸주필 김춘길 (28583)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층 전화: 043-234-0840 FAX: 043-234-0849 E-mail: cpcsw@chol.com 홈페이지: www.cwin.or.kr

진천군 "여성·아동 친화도시 본격 조성"

여성포럼·토크 콘서트·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 등

진천군이 여성가족과 신설에 따라 여성과 청소년, 영유아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친다. 군은 18일 올해 여성가족과가 신설되면서 영유아부터 청소년, 여성, 가족의 복지증진 도모와 전문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 여성가족과 30여명의 직원들은 부서 신설의 취지에 맞춰 다양한 맞춤형 사업 추진으로 아동·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보호

와 이들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등 군민들의 복지증진에 공헌해 기여하고 있다.

올해 여성가족과에서 추진되는 주요사업으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여성포럼 구성 추진', 저출산 극복 프로젝트인 '맘&대디' 토크 콘서트 개최, 다문화가족의 소통을 위한 '다가 ON(온)' 프로그램 운영,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 추진, 어린이집 데이터베이스 구축, 아동친화도

시 조성사업, 덕산청소년문화의 집 증축,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 프로그램 운영 확대 등으로 총 5개 분야에서 24개의 세부사업이 신규로 추진된다.

'가족사랑 음식나누기' 사업 등의 실시로 지역 여성단체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민간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사업운영 방식을 정착 시키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부서 신설을 통해 신규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힘쓰겠다"며 "여성친화도시와 아동친화도시 인공 추진을 통해 지역사회 구축성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기반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천군,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

충북도내 최초 도입... 다음 달부터 1인당 8만원

진천군이 아동이 어린이집에 신규 입학할 때 필요한 과외(유원복, 체육복, 가방 등)를 구입할 수 있는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 군의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 정책은 영유아 보호자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충북도내 최초로 도입해 추진됐다. 군은 최근 영유아보육조례를 개정해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내달부터 1인당 8만원을 입학준비금으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주소지가 진

천군으로 군내 소재한 어린이집에 신규 입학하는 만3~5세 아동으로 제도시행 첫해에 올해는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만3~5세 아동도 포함된다. 지원방식은 보호자가 어린이집에 입학준비금을 납부한 후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진천군에서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한다. 군 관계자는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육지원 시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음성군 '군민 중심 민원서비스' 펼쳐

임산부·장애인 등 전용 창구 운영... 각종 편의 시설 설치



음성군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임산부 등 우선 배려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음성군이 '군민이 우선인 소통 행정' 일환으로 14일부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임산부 등 우선 배려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임산부, 장애인 등 우선 배려창구 운영하고 있다.

'임산부 등 우선 배려창구'는 임산부, 유아동반 민원인,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가 민원실을 방문할 경우 먼저 민원을 처리해주는 창구다.

군청 민원실과 9개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각각 운영된다.

대상자들은 민원실을 방문할 경우 기다리지 않고 먼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일반 민원인들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과 자리 안내 스티커도 부착하여 편의성을 높였다. 조병욱 군수는 "이번 시책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을 위한 민원 서비스 환경조성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원편의 시책을 지속해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제천시의회, 조례안 3건 입법예고

장애인가족 지원 관련 개정안 등 20일까지 정식 상정

충북 제천시의회는 15일 제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제천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제천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3건을 입법예고 했다.

이정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실효성 있는 여성친화정책 추진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천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안'은 배동문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도시와 농촌 간 교류 촉진과 농촌의 체험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골자다.

김대성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아동의 양육 부담 경감과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지원 내용이 담겼다.

이들 조례안은 15일부터 20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시의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된다.

4월 푸드뱅크·푸드마켓 식품기부자 명단

- 푸드뱅크는 소외계층을 위한 식품 나눔 은행입니다 -

충북광역푸드뱅크

(주)에스앤푸드, CJ신선 진천센터, GS리테일 발안물류센터, 롯데칠성 광명센터, CJ나눔 계룡센터, CJ수원반물센터, 대상 양지센터, 대상 용인저온센터,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충북농협, 충북농협농협, 나눔농산물본부, 증원랜드, 한우협회, (주)파나산, (주)대성푸드, 롯데푸드, 체리푸드, CJ유유(충북점), 송림푸드, 청주유동, 에버리치, CJ신선 덕평센터, 롯데칠성 대전센터, 중앙제과(주), 롯데네슬레 청주공장, LG생활건강, (주)벨로드림, 송림푸드, 대상 덕평센터, 시아스 청주공장, 영농법인 무지개농장, (주)비비아, (주)미아비푸드, (주)금강B&F, KGC인삼공사 충북지점, 투병플레이스, 청암식품, 리온엘스, 주식회사 지지코리아

청주충북기초푸드뱅크

동양오츠카충청청주지점, 롯데제과(주)청주영업소, 마늘보쌈, 삼익주어탕, 좋은아침, (주)케이씨푸드, 명동보리밭, 삼익유유서부대리점, 좋은아침, 피자헛 청주대점

청주시 나눔푸드뱅크

참조유동, 엘리스(분평동), 백성유동, 홈플러스

스익스플러스, 좋은아침(가경점), 파riba게트(개신점), 파riba게트(북대점), 바나아루, 좋은아침(북대점), 푸레주르(비하계동점), 단컨도너츠(강서점), 팡스팡스, 풀링(지월시터점), 이초국제이커리, 금민마트, 동청주우유기, 초이스베이커리, 풀로리안, 좋은아침(생안점), 좋은아침(성화점), 파riba게트(가경대우), 청도너츠, 바로구농, 도담영농조합법인, 청룡영월, 명성물류, 머거바시푸드, 자연솔푸드, 푸드클로리, 한솔, 비전상사, 대상우수, 도담, 등고개농장, 제천유동, 장수유동, 오뚜기대리점, 중앙제과(주)

청주제일푸드뱅크

파riba게트(원평점), 분평우성점, 금천부영점, 산남점, 농림하나점, 용암효성점, 용암현대점, 건영점, 뉴타운점, 율랑칸타빌점, 율랑점, 개신점, 수암골 영광이제인, 좋은아침 오송점, 서문유동, 용암서문유동, (주)씨과농, (주)인영, 김대환에이커리

청주제일푸드뱅크

청주제일푸드뱅크, 한기정복지재단, (주)한백식품, 푸레주르 율랑점

청주새마을푸드뱅크

좋은아침오창점, 파riba게트(생동점), 푸레주르한리점, 푸레주르산단점, 기본좋은날, 그린하우스과자점, 오창점, 자갈치 민속떡집, 철책공원, 광주기독교서점, 전원푸드라, 낙원떡방

청주새마을푸드뱅크

주식회사 시아스, 푸레주르 금천정자점, 파riba게트 분평점, 한솔 제2농장, 금천떡집, 금관환인마트, 해신수산, 푸레주르 금천뉴타운, 파바로 베이커리, 황복떡집, 유신떡방, 파riba게트 청주제일점, 맥이랑, 푸레주르 청주유동점, 파riba게트 청주충북대점, 영농조합법인 화여읍, 홀프러스 익스프레스 청주유동점, 천영농조합법인, 정수기회(후생사), (주)헬드이살이메이커, 자연에어한영농조합법인, 천영, 김가네 생고기정육점, 파riba게트 청주제일점, 주주영, 서울우유지, 시아스유동, 푸레주르 분평점, 목행정, 금관환인마트 율랑점, 청주떡방(주), 우유에이커리

청원기초푸드뱅크

(주)우리농, 산과농F&C, 파riba게트 오창중앙점

증평군푸드뱅크

거림기계, GS슈퍼 증평점, 케이하우스, 금호순물집배, 사신식품, 좋은아침 율랑점, 파riba게트 내수점, 한그루식품, 오뚜기, 단비상사, 단컨도너츠 증평점, 델리인 증평점, 그린유동, GS25 증평대리점

괴산군기초푸드뱅크

진미식품, 괴산집과, 신선나도, 신선촌, 운산식품, 제중양악구, 풀무원, 서미숙, 유인숙, 장국회, 파바로 베이커리, 푸레주르괴산점, 파riba게트괴산점, 매크로통상, 미미식품, 한살림괴산식품, 주삼베이커리

옥천군푸드뱅크

푸레주르 엠마트점, 구가네 농이보장, 조마루 갑지당, 목도기, 흥운목, 미가(한성식), 이기화로, 옥천정당모타리점, (주)한일유드

영동나눔푸드뱅크

푸레주르(김홍옥), (주)베엘유가공

세울유유(보은점)

(주)서우물교, CJ나눔재단, 롯데칠성(청주, 충주, 대진, 오포, 안성), GS리테일, LG생활건강, 대상(일죽센터), 대전중앙물류센터

음성군푸드뱅크

CJ푸드빌, 롯데칠성(청주, 충주, 대진, 오포, 안성), GS리테일, LG생활건강, 대상(일죽센터), 대전중앙물류센터

진천군푸드뱅크

삼진푸드, 푸레주르(성모병원점), 연사랑, 레리부, 조인, 목우촌, 동원(이천, 백암), 삼육두유, 파riba게트(덕산점)

진천나눔과기푸드뱅크

파riba게트 진천정관점, 태남 메디스코, 신도식품, 윤지영, 김정식, 리브가왕만두판매, 김수형, 밀리퀵(이월점), 에스앤푸드, 자혜식품, 명가떡집, CJ푸드빌, 해머푸드서비스, 파스쿠피, 행복 떡집, 이삭식품, 명가떡집, 생가떡집, 맑은애오름

충주기초푸드뱅크

고인돌식품, 대우유동, 밀리퀵충주교점점, 떡보 의하루, 푸레주르 주덕점, 롯데제과(주)충주영업소, 삼성청과유동, 삼일상회, 서울우유지충주대리점, 유원유동, 육사정화, 은혜창과, (주)미림농산, GS코리아, 자미원에프앤지, 충주청과, 하나로베이커리(충주점), 한이영점과

제천시푸드뱅크

건국유업, 두리메리제, 롯데제과 제천, 박달재씨푸드, 문우동, 씨알푸드, 오뚜기 제천점, 오뚜기, 태성떡과, 푸른촌, 풀링(이), 365인인마트, 크리스피크림제천중앙점, 호수상사

단양군푸드뱅크

진천천사점, 진천SN푸드, 음성CJ, 음성(주)조인, 충주김치사리, 제천부흥촌, 롯데칠성, 일죽점점, 제천씨알푸드, CJ 진천, 단양(주)정통, 단양두식식품, 서울유유 단양대리점, 파riba게트 단양대리점

단양나눔과기푸드뱅크

CJ나눔재단, 롯데칠성(청주, 충주, 대진, 오포, 안성), GS리테일, LG생활건강, 대상(일죽센터), 광주파리크리앙점, 신선초, 허름, 맑은식품, 한돈, 선데이푸드, 대상청정원

영동군 '아기등록증' 발급 눈길

아기 출생 기념·출생 정보 관리 용이 목적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 아기 대상 무료 발급

영동군은 아기 출생을 기념하고 아기의 출생정보를 부모들이 기억하기 쉽고 편리하게 관리하기 위해 아기 등록증 무료 발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인구감소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선제적 대응을 하고 출산의 가치를 지역사회 전체가 공유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과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이달부터 본격 추진한다.

군은 출산장려금 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 지역사회 곳곳에서 효과를 얻어 지난 2017년 299명의 출생아 수를 기

록하며 통계청 분석 결과 출생아 증가율은 31.1%로 전국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무료 발급 신청을 시작한 아기 등록증은 신청일 기준 영동군 내 주소록을 둔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 아기가 대상이다.

앞면에는 아기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부모의 바램이 기재되며, 뒷면에는 태령, 태어난 시각, 몸무게, 키, 혈액형, 피, 부모이름, 예방접종표 등이 기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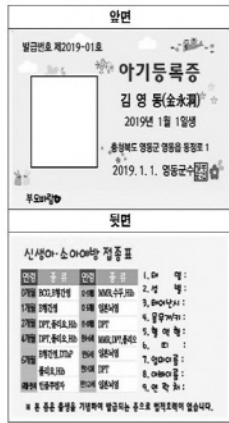
플라스틱 형태로 일반 주민등록증과 같은 크기로 제작되며 아기의 탄생을 전 군민이 축하하는

기념물적 성격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없다.

아이가 성장한 뒤에도 소중한 순간을 기록한 또 하나의 추억 거리가 될 수 있기에 벌써부터 지역 부모들의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아기등록증 발급 신청은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후 12개월 이내 신청서와 아기 사진1매(미지피알 제출 가능)를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제작기간을 거쳐 신청자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군은 출산가정을 위한 각종 시책사업이 군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지역의 출산 분위 조성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실질적이고 효용성 있는 출산 장려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기 등록증 시간

옥천군 허브공간 조성으로 청년정책 개선한다

청년 커뮤니티센터 건립 추진 사업비 15억 투입 380㎡ 규모 나눔마켓·고용촉진센터 등

옥천군은 청년 중심의 허브공간인 청년커뮤니티센터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9일 민·관·학 업무 협약을 했다.

이날 협약에는 충북도립대와 옥천청년연합회, (사)옥천청년회의소, 이월청년회, 옥천군 4-H연합회 등 청년단체 4곳이 참여했다.

이 협약은 청년 커뮤니티 센터 조성에 앞서 이용 주체인 청년들의 의견과 주거·사회·경제 실태 등을 파악해 완성도 높은 센터를 구축하는 동시에 향후 청년정책에 다방면으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했다.

참여기관·단체는 이번 협약을 통해 상호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청년층의 복지·문화·권리 신장을 위한 포괄적인 청년 중심의 허브공간이 조성될



청년 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한 민·관·학 업무 협약식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수 있도록 센터 구축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민선7기 김재중 군수의 청년공약 중 하나인 청년 커뮤니티 센터 조성 사업은 청년나눔마켓, 문화공연 등 청년 문화 커뮤니티 공간과 취·창업 지원 등 고용촉진을 위한 일자리 허브센터를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사업비 15억 원을 들여 충북도립대 부지 내 연면적 380㎡(지상 2층)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며, 오

는 2020년 준공 후 2021년부터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층에는 취업스터디룸, 다목적홀, 세미나룸, 카페 등 청년 소통공간이, 2층에는 취·창업 상담실, 취업 모의 프로그램실 등 일자리 지원 공간이 들어선다.

군은 지역에 처음 조성되는 청년 전용 커뮤니티 공간에 대한 지역민의 기대가 큰 만큼 성공적인 청년 정책 모델로 만들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영동에 고령자 위한 복지주택 짓는다

국토부 공모 사업 선정... 영구임대주택 등 208가구 LH공사 총사업비 270억 투입... 2021년 준공 목표

영동군에 주거와 복지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100가구 규모의 고령자복지주택과 영구임대주택 108가구 등 총 208가구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선다.

군은 지난 3월말 국토교통부 고령자복지주택 공모에 참여하고 4월에 제안서 검토·평가와 현장실사 등을 거쳐 최선실

을 갖춘 고령자복지주택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총사업비 270억 원을 LH공사가 부담하며 영동군에서는 부지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연내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거쳐 오는 2020년 착공 후, 2021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고령자복지주택'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맞아 국토교통부 주거 복지로드맵에 의거 '22년까지 전국 4천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에 따라 이번에 영동군에 208가구가 공급되는데 저층에는 물리치료실, 체력단련실, 시니어 카페 등으로 구성 된 2천㎡이하 노인복지센터가 설치될 예정이다.

각 세대별로 문턱제거, 높낮이 조절세면대, 욕실 미닫이 출입문 등 무장애(Barrier-Free) 설계가 적용된 고령자 친화형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한다는 방침이다.

영동군에서는 연초부터 국토부 공모사업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타 지자체 보다 한발 앞선 준비와 관련부서 간 협업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한 결과, 전국 12개 선정된 지자체 중 도내에서 유일하게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여기에 국토교통상임위 소속 박덕홍 지역구 국회의원은 국토교통부 담당부서를 찾아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직접 설명하며 사업이 선정되도록 다각적으로 힘을 보탰다.

고령자복지주택 공급 대상자는 65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이며, 국가유공자, 독거노인, 생계·의료급여수급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증평군가족센터, 보건복지타운에 신축

사업비 33억 들어 2020년 완공... 다목적강당·상담실 등

증평군은 사업비 33억원을 들여 증평읍 내성리 보건복지타운 내에 증평군가족센터를 2020년 건립하기로 했다.

증평군가족센터는 2003년 증평읍 장동리에 연면적 231.2㎡ 규

모의 사무소를 마련하고, 2013년에는 건축물을 증축했으나 증가하는 문화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2017년부터는 다문화가족 뿐만 아니라 일반인 가족들까지 서비스

대상으로 확대해 가족센터 사무소 확장 필요성이 제기됐다.

군은 이에 따라 증평읍 내성리 보건복지타운 내에 연면적 1천㎡ 면적에 지하 1층~지상2층 규모의 증평군 가족센터를 건립하기로 했다.

새로 건립되는 가족센터 지하층에는 창고와 기계실이 들어선다

층에는 교육실이, 2층에는 다목적강당과 상담실이 들어선다.

군은 증평군가족센터 건축비용은 충북도 2018년도 지역 균형발전 기반조성 사업 공모로 확보한 도비 9억7천만원과 군비 20억3천만원 등 30억원을 마련해 증축할 계획이다.

또, 가족센터 옆에는 국비와 군비 등 3억원을 들여 소공연장과 오솔길, 가족사랑 공간, 국가별 조형물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옥천군, 어린이집 영유아 급식 지원 '도내 최속'

안전한 먹거리 제공·지역 농가 판로 확보 위해 마련

옥천군이 어린이집 영유아를 위한 급식 지원에 이어 내달부터 급식지원까지 확대한다.

총복 도내 최속으로 이루어지는 급식 지원은 관내 영유아에게 차별 없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

급식의 질을 높이고, 지역 농가에는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올 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추가로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올 한해 총 2억5000만원의 예

산을 어린이집 간식과 급식 지원에 쓴다. 이를 통해 관내 어린이집 21곳에서 영유아 760여 명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각 어린이집에는 영유아 1명당 하루 약 1천83원 상당의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가 옥천살림협동조합을 통해 직접 배송된다.

군은 이번 급식 지원이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에 도움으로 주고, 최근 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어린이집 급·간식 부실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옥천군 관계자는 "어린이집 영유아들에 대한 안전하고 차별없는 먹거리 제공 차원에서 급식지원을 확대 한다"며 "안전하고 신선한 친환경 농산물 위주의 급식을 점차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괴산군 저출산 문제 극복 나선다

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괴산군지부 출범

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괴산군지부 발대식이 29일 괴산 여성회관에서 회원과 괴산군의원, 각급 기관·단체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괴산군에 따르면 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괴산군지부는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과 사회운동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괴산군이 직면한 인구절벽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다.

이 단체는 앞으로 다문화가정 또는 취약가구에서 출산 시가정을 방문해 아기용품 전달하고 자녀양육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등 출산장려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자녀 출산에 대한 캠페인과 홍보활동 등도 적극 펼쳐 나가기로 했다.

이연숙 괴산군지부 회장은 "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 저출산 문제 극복에 적극 나서

고 있는 만큼 괴산군지부에서도 그 노력에 발맞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인식 변화를 위한 캠페인과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지역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은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출범한 시민운동 단체로, 2008년 사단법인으로 창립된 후 현재 전국 14개 지역본부와 102개 지부가 활발히 활동 중이다.

보은군, 노인·장애인복지관에 행복버스 전달

보은군은 8일 보은군노인·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한 행복버스(25인승)를 전달했다.

보은군노인·장애인복지관의 셔틀버스는 일 4회 운행되고 있으나, 노후되어 이용의 불편함과 안전상의 어려움이 있었다.

전달식에는 정성혁 보은군수, 박덕홍 국회의원 등 지역주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복지관 이용자들에게 새봄에 윙글윙글 셔틀버스 차양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고, 함께 축하했다.

보은군노인·장애인복지관 박미선 관장은 "행복버스로 인해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과 장



보은군은 8일 노인·장애인복지관 이용자들을 위한 행복버스를 전달했다.

애인의 이동권이 보장되고,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며 "어버

님을 맞이하여 뜻깊은 지원을 해 주신 보은군에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충북사회복지신문

광고 게재 안내

지면	크기	배색	금액(원)
1면	4단 (360mm×138mm)	컬러	300,000
	제호 옆 돌출 (67mm×33mm) (3개월)	컬러	100,000
2면~7면	4단 (360mm×138mm)	흑백	150,000
8면	4단 (360mm×138mm)	컬러	200,000

개계 개월 및 기타 상황에 따라 협의 조정 가능

충북사회복지신문은 사회복지기관 및 관련단체, 시민단체, 병원, 학교, 자원봉사자와 후원자, 일반시민 등 전국으로 배포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이슈를 효과적으로 알리고 싶은 분은 적극적으로 충북사회복지신문을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충북사회복지협의회 김슬지 사회복지사 (T.043-234-0840~2)

충북 '발달장애인 훈련센터' 설립된다

맞춤형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들어선다

취업 희망 장애인 대상 직무교육·체험 등 직업 훈련 SK하이닉스 행복모아(주) 등 파트너사 참여·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충청북도교육청은 '충북발달장애인훈련센터'에 센터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충북발달장애인훈련센터는 취업할 수 있는 10개의 직업체현관 대상으로 고용연계형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사무행정, 제조실무, 서비스지원 등 다양한 직무를 체험할 수 있는 10개의 직업체현관을 운영하여 학령기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조기 진로직업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진로·직업교육을 담당할 전문 인력을 배치해 발달장애인들에게 다양

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설되는 충북발달장애인훈련센터에는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지역사회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이 직업체현관 파트너사로 다수 참여하여 발달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해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파트너사로 참여 예정인 SK하이닉스의 행복모아(주), LG화학의 ㈜행복누리, LG생활건강의 ㈜맑은누리는 세탁 및 포장, 바리스타 및 제과제빵 등 다양한 직무를 개발하여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발달장애인훈련센터는 현재 서울 등



조종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앞줄 왼쪽)과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앞줄 오른쪽)이 2일 발달장애학생들을 위한 훈련센터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7개소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기 발달장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직업훈련뿐만 아니라 학령기 발달장애인에게도 다양한 직무에 대한 직업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충북 등 6개 지역 개설회와 함께 2020년까지 전국 17개 시·도로 확산할 예정이다.

조종란 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은 "충청북도만의 특색을 갖춘 발달장애인 훈련센터를 개소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면서 "대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가 발달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어린이집 종일반·맞춤반 내년 폐지

보육시간 연장 제공 대상 확대... 올해 시범사업 운영

내년부터 '맞춤형 보육'이 없어지고 실수요자에게 추가보육을 제공하는 새로운 어린이집 보육 체계가 도입돼 맞벌이와 외벌이 등 모든 실수요자에게 제공된다.

하지만 늦은 밤까지 아들이 어린이집에 남아 애매하게 부모를 기다리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보육 당국이 오후 10시까지 문을 여는 어린이집 아간반은 검토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이 보육시간을 기

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해 운영하고 각각의 보육시간에 전담 교사를 둘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어린이집은 모든 아동에게 7~8시간의 '기본보육 시간'(오전 9시~오후 4시 또는 5시)을 보장하고, 그 이후에도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게는 4~5시간의 '연장 보육시간'(오후 4~5시 이후)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연장 보육시간에는 별도의 전담 보육교사가 배치되고, 맞벌이 뿐 아니라 외벌이 가정 등 모든 실수요자가 연장 보육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연장 보육시간에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오후반만 운영하고, 야간반을 만들지는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새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오전에 어린이집에 등원한 아이가 부모가 데리러 올 때까지 밤늦게까지 남아있는 일은 겪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새로운 보육체계가 자리 잡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별도 예산을 확보하고 연장전담 보육교사만 수만명을 새로 뽑아야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일단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실제 수요를 파악한 뒤 구

체적인 제도운영 행태를 짜기로 했다. 복지부 보육정책과 관계자는 "새로운 보육체계에서 보육시간과 세부운영 기준 등은 아직 확정된 게 없고, 관련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맞춤형 보육체계에서는 만 0~2세 영유아를 어린이집에 맡기는 경우 맞벌이 등만 종일반(하루 12시간)을 이용할 수 있다.

전업주부의 아이는 맞춤형(하루 최대 6시간)만 이용이 가능했다. 긴급보육바우처를 쓰면 정해진 시간 이상 아이를 맡길 수 있지만 매달 최대 15시간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차별 때문에 정부가 맞벌이와 외벌이 부모 간 갈등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2020년 7월 완공... 암 검진 등 특화 항목 개발·보급

장애인에게 맞춤형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용 종합건강검진센터가 세워진다.

국립재활원 내 건립부지에서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건립 공사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국립재활원장을 비롯한 장애인, 지역 주민, 공사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장애인 건강검진센터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근거해 건립

하는 장애인 종합건강검진센터이다.

이를 통해 장애인을 위한 기본 건강검진과 암 검진 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특화된 검진 항목을 개발·보급으로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검진 의료 서비스 제공과 장애인의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에 기여할 전망이다.

장애 특성에 맞는 맞춤형 종합검진이 될 수 있도록, 초음파실, 자기공명영상(MRI)실, 컴퓨터 단

층촬영장치(CT)실, 내시경실 등의 장애인 친화적 시설과 장비를 2020년까지 갖추게 된다.

국립재활원 이범성 원장은 "국가건강검진을 통해서 장애인이 건강위험요인과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장애인 건강검진센터가 건립·운영되면 장애인이 자발적으로 건강검진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예방의료 서비스 이용 접근성을 높여 비장애인과 국가건강검진 수검률 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기요양 인정신청 이제 치매안심센터에 문의하세요"

보건복지부는 시·군·구 보건소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가 치매 환자의 장기요양 인정신청을 대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은 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 신체·가사활동 지원, 간병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해야 하고, 판정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을 수 있다.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이 신체·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하고 싶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도록 하는 제도다. 시·군·구의 보

건소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 조기검진, 단기검진, 가족지원, 지역자원 연계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 현재 약 38만 3000명의 치매환자가 등록되어 관리 중이다.

그간 장기요양인정을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친족이나 사회복지전문공무원이 대리 신청할 수 있었다. 치매를 알고 있는 어르신의 신청 편의를 위해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법'과 '치매관리법'이 이번에 시행됨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 신청, 갱신 또는 등급변경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 치매안심센터의 장이 추가됐다. 또한 센터장에게는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와 그 가족에게 해당 신청에 대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의무

가 부과됐다.

장기요양인정의 대리 신청을 원하는 치매환자와 그 가족은 치매안심센터로 요청하면 된다. 다만, 65세 미만인 사람은 치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나 의사소견서를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

치매환자가 장기요양 5등급을 받으면, 가정에서 인지활동형(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인지기능이 저하된 치매 수급자의 인지자극활동과 남아있는 신체·인지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함) 방문요양서비스를 받거나, 주야간보호시설(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제 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돌봄영역 가장 많아

16개 광역시도 특성 살려 '자체사업 중심'

모두 870개 사업... 관련 예산 총 4조8천330억원

보건복지부는 광역자치단체가 향후 4년간 복지정책을 추진할 계획을 담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사회보장 정책 심의·조정 기구인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했다고 6일 밝혔다.

광역단체는 4년마다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역 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한 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인천은 계획 수립 지연으로 이날 중 제출 예정이다.

16개 광역시도는 중앙정부 주도로 보편사업(국고보조사업)이 아

니 각 단체의 고유 특성을 반영한 '자체사업 중심'으로 계획을 마련했다. 제출된 계획을 분석한 결과,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목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는 '시민', '삶', '행복', '복지', '복지공공체' 등이었다.

추진전략이 가장 많이 수립된 영역은 돌봄(21.1%)이었으며, 고용(13.3%), 건강(7.8%), 주거·전달체계·교육(각 6.7%) 순이었다. 지원유형별로 보면 시설지원(15.7%), 장애인(장애인 가족 포함) 지원(14.6%), 아이돌봄·다

자녀·신혼부부 등 보편적 가정 지원(8.3%), 저소득층 긴급 지원(6%) 순이었다.

제출된 사업은 총 870개로 시도별 평균 54.7개였다. 관련 예산은 총 4조8천330억원이었으며, 서울(34.6%), 광주(17.3%), 경기(17.1%) 예산이 전체의 약 70%를 차지했다. 현 정부의 핵심 사회정책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의 방향성을 반영한 광역시도는 12곳이었다.

관속한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장은 "각 지역이 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 욕구를 깊이있게 파악하고 있다"며 "중앙주도에서 지역주도 사회보장으로 발전해가는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 개소... 체계적 정책지원 나선다

광역지방자치단체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기반 마련 변호사 등 전문가 위촉... 자체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광역자치단체에서 설립·운영하는 공익법인으로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등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서비스원을 지원하는 중앙지원단이 개소됐다. 보건복지부는 3일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은 사회서비스 정책지원단은 사회

서비스 정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했다.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의 운영은 보건복지부가 공모를 통해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위탁했다.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은 사회서비스 정책지원 및 연구, 사회

서비스원 관련 설립·운영 자문, 평가제도 설계와 성과평가, 표준 운영지침 마련, 종사자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 중앙지원단 내에 '사회서비스원 전문가 자문단(컨설팅단)'과 '이해관계자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사회서비스원 전문가 자문단'은 중앙과 지역 단위에 변호사, 노무사, 회계사 등의 전문가를 위촉해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상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맞춤형 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해관계자 정책자문위원회'는 학계, 보육·요양 등 시설

장 단체, 노동계, 시민단체와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해 사회서비스원 발전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사회서비스원 추진담당장겸임)은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은 사회서비스원이 현장에 정착하고 사회서비스 공공성 향상을 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주춧돌 역할을 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에 계속해서 귀 기울여 달라"고 전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이 보다 성장·발전해, 사회서비스 품질향상 지원과 사회서비스 정책의 총괄 조정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문봉사단이 되어 나눔을 실천하세요! 지역사회봉사단!

- 지역사회봉사단이란?**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종관리시스템(VMS)에 등록된 다양한 재능과 특기를 갖춘 봉사자들이 모여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소외계층에게 지속적으로 맞춤형 봉사활동을 하는 전문 자원봉사단
- 봉사단 위촉 기준**
VMS 가입 5인 이상으로 구성되고 연 4회 이상 활동 가능 단체
- 봉사활동 분야**

구분	내용
기술·기능	디자인, 번역봉사, 전기·가스점검, 집수리, 도매, 기능전수 등
상담·정보	법률 및 세무상담, 아동·청소년 상담(멘토링), 취업, 창업 등 각종상담 및 정보제공
운영·지원	재활도우미봉사, 재가대상·방문봉사, 행사, 프로그램보조봉사 등
문화·예술	음악, 연극, 무용전행 등 공연봉사, 지역문화축제, 지역주민 대상 행사진행 등
교육·학습	나눔·경제교육, 장애인·저소득층을 위한 수학, 영어, 국어, 한문 등 학습지도
노력·행정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노력봉사, 청소봉사, 행정 및 사무지원 등
보건·의료	무료진료, 호스피스, 간병, 위문, 운동보조, 병원업무보조 등
교통·환경	교통정리, 차량이동봉사, 지역환경 개선, 재활용품 및 환경관련 캠페인 봉사 등

- 봉사단 혜택**
활동재료비 일부 지원(중복지원 불가, 중복사회복지자원봉사대회 참석)
자원봉사활동 시간 인정
다양한 문화공연 초청(VMS, 복지넷)
참여 지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 및 홍보
- 신청 및 문의**
충북사회복지협의회 복지사업부
김민지 코디네이터

전 화 043) 234-0840
홈페이지 www.cwin.or.kr

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농촌지역 구석구석, 복지사각지대 찾기

북이면 대길리 마을경로당서 '찾아가는 상담창구' 프로그램

청주행복네트워크(센터장 김창수)와 목령종합사회복지관(관장 최태선)은 10일 북이면 대길리 마을경로당에서 '찾아가는 상담창구'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찾아가는 상담창구' 프로그램을 통해 마을주민 중 도움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에 대한 상담과 지역 내 이용 가능한 보건·복지·의료기관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졌다. 또 현재 목령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 중인 사업을 안내하며 각 대상자별 다양한 욕구에 맞춘 전문적인 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해 정보 제공하였다. 청주행복네트워크는 108개의 참여·협력·연대기관과의 컨소시엄을 구축하여 위기사례 발굴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맞춤형



마을경로당에서 '찾아가는 상담창구'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농촌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서비스 이용 및 만족도를 한 단계 향상시

킬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김창수 센터장은 "농촌지역의 경우 지리적인 특성으로 인해 복지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제한되는 만큼 앞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본 사업의 중요성이 더욱 확장되어 나타날 것"이라고 전했다.

가족 대화시간 높을수록 가족만족도 높아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설문조사 결과 7.73점

충북 도민의 가족만족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7.73점이고, 가족 대화시간 높아질수록 가족만족도 점수도 함께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센터장 이화경, 이하 센터)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과 우선순위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충북도민 305명을 대상으로 가족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

준에 ±6.93%다. 14일 센터에 따르면 충북 도민의 가족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7.73점으로, 지난해(8.00점)보다 0.27점이 낮아졌다. 연령별로는 40대가 8.17점으로 가장 높았고, 30대(8.05점), 50대(7.67점), 60대 이상(7.56점) 순이었다. 주목할 점은 20대의 가족만족도가 작년과 비교해 크게 낮아졌다는 것이다. 20대 이상의 만족도는 7.14점으로 지난해(8.28점)보다 1.14

점 낮아졌다. 이번 조사에서 가족 만족도 점수가 5점 이하로 평가된 응답자 수는 그 이유로 경제적 어려움(32.5%)을 가장 높게 꼽았다. 이어 의사소통문제(26.8%), 가치관의 차이(21.7%), 건강(12.7%)이 뒤를 이었다. 또 가족 간 하루 평균 대화 시간이 30분 미만이라 답한 응답자는 54.4%였다. 지난해 63.8%보다 9.4%p 줄어든 수치다. 대화가 전혀 없거나 10분 미만이라 답한 응답자도 11.8%를 차지했다. 가족 간 대화시간이 많을

수록 가족 만족도 점수도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대화가 없을 때 만족도는 5.87점에 그친 데 비해 대화가 1시간 이상일 때 만족도는 8.82점으로 조사됐다. 가족 간에 대화를 방해하는 요소는 TV와 컴퓨터, 스마트폰 사용이 37.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가족 간 갈등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 제공자는 배우자(28.5%), 부모님(25.9%), 자녀(19.7%) 순으로 조사됐다. 가정의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1순위 '건강' 51.5% 2순위 '소득(대학) 23.9%로 높게 나타났다.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는 건강과 소통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조사 결과였다.



청주가정유치원은 지난 25일 나눔 수업의 저금통 모금액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충북지역본부에 전달했다.

청주가정유치원, 고사리 손으로 모은 기부금 전달

저금통 모금액으로 15만원 모아... 교사도 후원금 지원

청주 가정유치원(원장 우성자)은 25일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사용해 달라며 나눔 수업의 저금통 모금액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충북지역본부(본부장 김유성)에 기탁했다.

이날 기탁된 152,000원의 성금은 가정유치원 원생들이 '나눔의 행복'이라는 나눔 수업을 학습한 후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기부한 저금통의 수익금으로 마련되었다. 교육을 진행한 교사도 후원금을 보태며 아이들과 함께 기부의 행복을 삶으로 실천하였다. 우성자 원장은 "더 어려운 어린이들을 위해 고사리 손으로 모아준 후원금에기에 더 소중하고 뿌듯하다. 훗날 아이들이 더불어 나누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후원금을 전한다."는 소감을 밝혔다. 가정유치원은 청주시 흥덕구에 위치하며 우성자 원장은 2009년부터 저개발국 해외 아동들을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등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음성군장애인복지관, 7일 관장이·취임식

전호찬 관장 새로 취임 "모든 운영 공정·투명하게"

음성군장애인복지관은 7일 복지관 내 2층 회의실에서 김호욱 관장 이임·전호찬 관장 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이·취임식은 복지관 직원 및 이용자, 내빈 등 100여명을 모시고 간소하게 진행되었다. 1년 3개월간 관장직을 역임하고 이임하는 김호욱 관장에게 재직직원들이 그동안 노고에 감사한 마음을 담은 선물과 꽃다발을 전달했다. 김호욱 관장은 이임사를 통해 "그동안 복지관이 잘 운영될 수 있



음성군장애인복지관 이·취임식에서 좌측부터 전호찬 취임 관장, 박영아 사무국장, 김호욱 이임 관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게 힘써주신 직원 및 관계자분들께 항상 감사하다. 비록 떠나지만 마음은 항상 음성군장애인복지관에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새로 취임한 전호찬 관장은 취임사를 통해 "복지관의 모든

운영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할 것을 약속하며 직원들과 초심을 잃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며 "밝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지역사회 내 장애인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온 가족 함께하는 '11회 가족사랑 한마당' 기념식

장애인스포츠클럽서 팔씨름·먹거리 등 '다양'

지난 18일 청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박미영) 주관으로 함께하는 가족을 주제로 펼쳐졌다.

이날 행사는 청주시민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정의 달 및 부부의 날 기념 '제11회 가족사랑 한마당'이 청주시장애인스포츠클럽터에서 성황리에 마쳤다.

특히, 가정의 달 및 부부의 날을 기념하여 유공자 표창이 진행되었고,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가족골든벨, 우리 엄마, 아빠는 천하장사(팔씨름) 등 가족어울마당



청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시민 1,000여명을 대상으로 '함께하는 가족'이라는 주제로 진행했다.

행사와 함께 다양한 지역사회 유관기관들이 참여하여 페이스페인팅, 우쿨렐레체험, 아동권리놀이, 직업홍미경사, 스티커타투, 다문화 전통놀이, 부직포가방 및 별꽃겉이 만들기 등 여러 가지 체험활동, 각종 먹거리부스, 에어바운스

등을 운영하며 축제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더불어 치어리딩, 태권무, 풍물놀이, 베트남 전통춤 등 각종 축하 공연이 이어져 청주시 가족 간의 사랑과 화합을 나누는 소중한 추억의 시간이 마련 되었다.



지난 3일 장애위탁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력으로 안전한 가정환경 적극 지원 약속

세이브더칠드런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관장 김영일)는 지난 3일 충북도 내 장애위탁가정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한국장애인부모회 충북지회와 충북지회(회장 최나나)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장애위탁아동을 키우시는 위탁가정을 대상으로 부모교육, 상담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장애 위탁아동이 가정 내에서 보다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

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 김영일 관장은 "한국장애인부모회 충북지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충북도 내 장애위탁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기관 간의 활발한 협력을 기대한다"면서 "한국장애인부모회 충북지회를 시작으로 지역 사회 유관기관과의 업무협력을 통해 충북도 내 위탁아동들이 안

전한 가정환경에서 보호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는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2003년 개소하였으며 국제구호개발 NGO 세이브더칠드런 법안에서 운영하고 있는 충청북도 지정 아동복지 전문 기관이다. 충북도 내 435명의 위탁가정 아동에게 다양한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돌봄종사자 인식개선 및 돌봄서비스 향상을 위한 돌봄종사자 건강권 지원사업

사업내용

1. 돌봄종사자의 신체적·심리적 건강관리 프로그램 지원
집단상담, 미술치료, 웃음치료, 안전교육, 의사소통교육, 호스피스교육, 소모임 지원 및 개발
2. 사회인식개선을 통한 건강권지원
좋은 돌봄의 중요한 요소인 상호 신뢰와 존중에 기반하기 위하여 돌봄종사자를 위한 사회적 관심을 도모
3.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권익옹호
돌봄 인력의 사회권에 대한 입체적인 지원을 위해 지역협력체계를 구성하여 돌봄종사자의 권익향상을 도모

사업기간 18년 9월~ 19년 8월

충북도내 돌봄종사자(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건강권 증진과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 건강·교육·인식개선·네트워크 구성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합니다.



'출생부터 노후까지' 내 삶에 필요한 복지, 한권에 담았다!

'2019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안내책자 개정 발간
일자리·출산·육아·의료·노후 등 상황별 복지 정보 통틀어

2019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의 입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복지서비스(23개 중앙행정기관, 400여 개 서비스)를 한 권에 담은 '2019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를 개정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책자는 약 400여 종의 복지사업을 기준으로 올해 변경되는 사항 및 새롭게 도입되는 사업을 포함하여, 국민이 일상 속에서 교육, 일자리, 생계 및 돌봄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특히, 올해부터는 안내책자에 현직공무원, 사회복지사 등 대상 설문조사, 사회보장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제기된 개선사항을 반영하였다.

보건복지부는 더 많은 국민이 보다 쉽게 사회보장제도를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동 주민센터 및 지역자활센터, 고용센터, 국민연금·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 전국 8,000개 기관에 배포된다.

내게 맞는 복지서비스 찾기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기본적인 생활보장과 자립 지원으로 삶의 질을 높입니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18p), 긴급복지 지원제도(22p), 저소득·서민을 위한 주택임대사업(25p), 창업자금 지원(44p) 등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들 때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지급할 수 있도록 생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합니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 1. 대상** 소득인정액이 급여액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부모(거부도 포함), 자녀(사위, 며느리 포함) 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이 책어 부담할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의 가족관계 체계(이혼, 폭력, 학대) 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 기피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 부양의무자가 군복무 중, 고소수 수감, 해외이주, 행방불명 등인 경우
 - ※ 교육금액,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2. 내용** 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

생계급여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차감액 소득인정액이 60만 원인 4인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38만 4,051 원에서 60만 원은 한 78만 4,070 원 지급(한 달 월액)

의료급여 질병, 부상, 손상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은 본인부담으로 있음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구분	1차(의비)	2차(총비)	3차(상급종합병원)	약국	PET 등
1종*	없음	없음	없음	500원	없음
2종**	10%	10%	10%	500원	10%

*1종 : 근로능력평가, 치과진찰 중증질환 등록, 시술수급자
**2종 :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 주거급여**
 -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를 지원
 - 자가가구: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중저 노후도를 평가(중·대 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주거)	378만 원(3년)	702만 원(5년)	1,026만 원(7년)
주선예산	도배, 장판 등	모퉁이, 난방 등	지붕, 기둥 등

※ 장애인 자가가구 수급자: 주거개선용 편의시설*을 38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고령자(만65세이상): 주거개선용 편의시설*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장애인 추가자원과 고령자 추가자원은 중복지원 불가, 장애인으로서 고령자인 경우 장애인 추가지원 적용

교육급여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교육급여 지원내용)

구분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	입학금 및 수업료
초등학생	13만 2,000원	7만 1,000원	-	-
중학생	20만 9,000원	8만 1,000원	-	-
고등학생	20만 9,000원	8만 1,000원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 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
지급 횟수	연 1회	연 1회	연 1회	입학금만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그 밖의 지원

구분	지원내용
해산 급여	출산(예정)한 경우 아이 1명당 60만 원(생동하는 120만 원) 지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됩니다.
장제 급여	사망할 경우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사망자 1인당 75만 원 지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 생계·의료·교육급여: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거급여: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LH 마이홈(☎1600-1004, www.myhome.go.kr)

일 자리를 찾고 계신가요?

안정적 일자리를 마련하고 취업을 돕습니다.
실업급여(62p), 취업성공패키지(63p), 내일배움카드제(65p), 근로장려금(70p) 등



실직으로 곤란을 겪고 있을 때

직장을 잃은 후 다시 직장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실업급여

- 1. 대상** 직사를 그만두기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임금을 지급받고, 본인이 원해서 않았음에도 퇴사한 후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
 -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사업장 휴·폐업 등 정당해고 이의사유가 없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근무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 2. 내용** 이직 당시의 내역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간 이직 전 평균임금의 50% 지급
 - ※ 2019년 1월 이후 이직자의 경우 1일 실업급여 상한액은 6만 5,000원으로 인상
- 3. 방법**
 - 퇴직 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 실업신고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이직) → 수급자격 지리 및 실업인정일 지정(고용센터) → 재발령통수(수급) → 실업인정 및 구직급여 지급(고용센터)
- 4.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알려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 실업급여는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본인의 소정구직요건을 한도로 지급하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실업신고(실업급여수급자격 신청)를 해야 합니다.

부정해고에 수급권 반드시 사고해주시요.
-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안 되는지 여부 또는 기타 부당해고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았다고 의심되는 경우 퇴직 후 12개월 이내 고용센터에 신고(500원 한도)하여 20%의 요율로 주사하고, 피고용자가 사용자에 고의한 경우에는 요율금 3,000원, 벌금 50만 원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해고자의 신분은 별다른 비용도 부담합니다.

아이를 낳는 것도 키우는 것도 걱정이지요?

부담없이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91p), 보육 지원(100~109p), 방과후 돌봄(116~117p) 등



임신·출산이 경제적으로 부담될 때

건강한 임신, 행복한 출산을 위해 태아와 임산부의 건강증진을 돕고 진료비와 출산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1. 대상**
 -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로 난임 진단을 받은 의료급여수급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80% (2인 기준 직전 16만 9,911원, 지역 17만 4,163원) 이하 가구
- 2. 내용** 체외수정(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종래본인부담금 1회당 최대 50만 원 범위에서 임신 4회, 동결 3회, 인공 3회 총 10회(건강보험 적용 시술에 한함) 지원
- 3. 방법** 보건소에 신청
- 4. 문의** 주소지 보건소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알려드립니다

난임부부의 심리적·정신적 고통 해소를 위한 심리 및 의료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상담문의 및 상담예약 : www.nmc227276.or.kr

중임 및 결핵·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안내
- 중앙난임우울증상담센터 02-2276-2276(국립중앙의료원)
- 인천광역시난임우울증상담센터 032-400-3209(7)한대 길병원
- 대구광역시난임우울증상담센터 053-261-3373(강북대학교병원)
- 전남광역시난임우울증상담센터 061-901-1234(대여섯사랑병원)

건강에 문제가 있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의료비 부담을 줄입니다.
건강보험제도(154p), 건강보험 차상위(156p),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171p) 등



의료비 부담을 덜고 싶을 때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예방합니다.

건강보험제도

- 1. 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전 국민(의료급여수급자 제외)
 - 직장가입자 :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과 그 피부양자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

요양급여	한할 일차, 목욕 치료재료의 지급, 처사 수급 기타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입소에 대한 요양급여 제공
요양비	• 만성질환자(중증) : 입원환자, 산모(산전산후)의 의료비 일부 지원 • 산소치료, 인공호흡기, 가압호흡기(호흡)가 필요한 환자, 수면유도제를 투여하는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산소장비 등 기기 대여(산소호흡기 및 일부 지원) • 병·의원, 조산소가 아닌 지역 또는 의료 중 출산 시 25만 원 지급
건강비	건강관련 실시(2년에 1회, 비사무직은 매년) - 국가건강검진(초·중·고·대학) (보건복지부)
임신·출산 진료비	임신 출산 진료비 60만 원(임산부 의료비)로 지급 *2019.1.1. 이후 신규 임신유발 치료 *2019.1.1. 전 상임부수 50만 원(태아에 90만 원) 지원 (태아에 100만 원, 분만 위약기 거주 임신부 20만 원 추가 지급)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초·중·고·대학)
장제(장제) 지원	장제(장제) 지원 구급금의 일부 지급
3. 방법	• 직장가입자 : 직장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지역가입자 : 직장 실적, 퇴직 시 지역가입자로 전환
4.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알려드립니다

부양책임자?
- 직장가입자에 의하면 생계유지할 때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배우자, 부모, 조부모(연속자의 부모 조부모 포함), 자녀, 손·녀(연속자의 자녀 손·녀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 자매를 포함합니다.

어르신들, 생활이 편리하며 걱정이 많으시죠?

재정, 의료, 일자리 등 노년의 삶의 질을 높여드립니다.
기초연금제도(174p),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178p), 치아관리비용 지원(186~187p) 등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이 필요할 때

노후를 미리 준비하지 못했거나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일정한 연금을 지원해 보다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돕습니다.

기초연금제도

- 1. 대상**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소득 하위 70%)이하인 어르신
※ 2019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37만 원, 부부가구 219만 2,000원
- 2. 내용** 월 최대 25만 3,750원(소득하위 20%이하 저소득어르신 30만 원)까지 지원

구분	선정기준액	월 최대 지원 금액	
		단독가구	부부가구
소득하위 20% 이하	단독가구 5만 원, 부부가구 8만 원	30만 원	48만 원 (1인당 24만 원)
소득하위 70% 이하	단독가구 137만 원, 부부가구 219만 2,000원	25만 3,750원	40만 6,000원 (1인당 20만 3,000원)

※ 상대적으로 여유가 없었던 분은 최소 2만 5,000원에서 25만 3,750원까지 차등지급

- 3.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만 65세 미만인 분들은 만 65세 성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신청 대상이 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별도 공지
-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 기초연금 누리집(basicpension.mohw.go.kr)

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차별과 불편 없이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하도록 힘을 드립니다.
장애연금(200p),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운영(212p), 장애인활동 지원(232p)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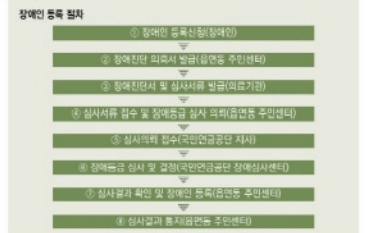
장애로 인해 생활이 곤란할 때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해드립니다.

장애인 등록신청

- 1. 대상** 지체·시각·청각·언어·정신장애 등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장애를 받는 사람
- 2. 내용**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발급 후 국가 및 지자체의 각종 복지서비스 제공
- 3. 방법** 본인,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인양인 제출 서류
- 사진(3.5cm X 4.5cm) 1장(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사진자료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 생략)
- 재외국민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주민등록증 등명사본
- 4.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알려드립니다



장애인연금

- 1. 대상**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 중증)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만 2,000원)이하에 해당하는 자
- 2. 내용** 근로 능력 감소로 소득이 미미하고,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 비용으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 대해 장애인연금(기초급여, 추가급여) 지원

(2019년 4월 기준, 월지급액)

구분	만 18세 ~ 64세	만 65세 이상**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38만 원 • 기초급여 30만 원 • 추가급여 8만 원	38만 원 • 추가급여 38만 원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32만 3,750원 • 기초급여 25만 3,750원 • 추가급여 7만 원	7만 원 • 추가급여 7만 원
차상위 초과	27만 3,750원 • 기초급여 25만 3,750원 • 추가급여 2만 원	4만 원 • 추가급여 4만 원

*차상위계층 : 2019년 기준 중위소득 50%(4인 가구 230만 6,768원) 이하

**만 65세 이상 시에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전환(별도신청 필요)

-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시군구 통합관리팀 조사 → 보장결정 → 급여지급(매월)
- 4.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복지포털 - 장애인연금(www.bokjiro.go.kr/pension)

이 밖에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보훈대상자 및 그 가족, 특별한 어려움에 처한 위기가족, 한부모 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 및 그 가족, 기타 특수 피해를 입은 분들과 의료로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사망하신 분들과 그 가족들에게도 합당한 지원과 보상을 해드립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복지광장

세상을 밝히는 등불 "나눔"

복지포럼

호칭, 평등한 가족 관계의 시작



한 관 희

사회복지법인 예심복지재단 이사장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부조리하 면서도 오묘한 질서를 가지고 있습 니다. 즉, 경쟁, 균형, 순환의 법칙의 생 태 계라는 커다란 체계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도태하게 됩니다. 따라서 모든 생명체 는 생존하기 위해 다른 생명체들과의 경쟁을 피할 수 없습니다.

경쟁은 하되 균형의 파괴를 허락하 지 않는 자연의 질서에는 또 다른 오묘 한 법칙이 있습니다. 바로 순환의 법칙 입니다.

강물이 증발하여 구름이 되고, 구름 은 비가 되어 강물이 됩니다. 사슴이 풀을 먹고, 호랑이는 사슴을 잡아먹습 니다. 호랑이는 죽어 거름이 되고 풀은 비옥하게 자랍니다.

부분만 보면 강자와 승자가 있지만, 전체를 보면 승자와 패자가 없는 것이 생태계의 순환법칙입니다. 또한 자연 생태계는 선의의 경쟁자가 없으면 진 화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생태계는 경 쟁, 균형, 순환이라는 부조리하면서도 오묘한 질서아래 생명을 잉태하고 성 장시켜왔습니다.

미국을 보면 건강한 사회를 지탱하 는 뿌리는 바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를 배려하는 시민의식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인구의 절반정도는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 주거나 어르신 들이 공공기관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등 나눔을 돕는 일에 주

당 4시간 이상 자원봉사를 하는 것이 생활화 되어 있습니다.

경쟁의 사회에서 개인주의가 당연 한 듯이 여겨지는 요즘 "나눔"을 실천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어려서다고 생 각될 수 있지만 건강한 사회를 실현하 는 최고의 덕목인 것입니다.

미국의 워런버핏은 단돈 100달러를 시작으로 약 99조원에 이르는 재산을 보유하였습니다. 워런 버핏은 "나의 기 부서약"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시간과 재능을 기부하고 있다고 하면서, 자신 의 가장 소중한 재산인 시간을 기부하 지는 못하지만 자신의 재산 99% 이상 을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약속했습니 다.

그리고 다른 부자들에게도 재산의 50%이상을 사회에 기부하라고 호소 했습니다.

최근 나눔이 우리사회의 화두가 되 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사람들은 나 눔을 과거와는 달리 단순하게 착한일 로 해석하기보다는, 승자독식의 사회 구조를 치유할 수 있는 가치이자 유용 한 도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눔은 돈 있는 사람이 기부로, 시간과 재능이 있는 사람은 자원봉사로 세상을 아름답 게 변화시켜 나가는 미학입니다. 승

자독식의 사회가 파괴한 균형, 순환 법 칩을 복원시켜 나가는 사회적 실천입 니다.

나눔은 처지와 조건에 구애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으며 이것 은 곧 실천력과 결부됩니다. 내가 형편 이 나아지면, 여유가 생기면 할 수 있 다고 생각하는 측면이 많습니 다.

그러나 우리의 생활은 항상 부족하 고 우리의 욕심 보따리는 덜 채워져 있 습니다. 나눔은 현재의 처지와 조건에 서 출발합니다. "콩 한조각도 나눠먹어 라"는 옛 속담이 있지요, 나눔다는 것 은 뭔가 많은 걸 갖고 있어야 할 수 있 는 것을 부정합니다. 일상적이라는 것이죠. 연말연시가 되면 사회복지시 설에 누가 얼마를 기부했니, 누가 다녀 갔니 아단입니다.

왜 이 때만 그럴까요? 이것은 상대 방을 진정으로 위한다기 보단 자신의 사회적 체면을 세우고 덕망을 쌓기 위 한 허세일 경우가 많습니다. 일방적인 측면에 가깝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나 눔을 실천하고 계십니까?

이웃에 대한 작은 관심과 노력이 곧 나눔의 시작입니다. 나눔을 실천하여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합니다.



심 재 석

충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어보, 오늘 점심은 시댁에 가서 시아버님, 시어머님하고 식사해요.", "저녁 식사는 처가 에 장인어른, 장모님과 합시 다."

5월 8일 어버이날, 어느 부부 의 대화 내용이다. 결혼한 남성은 여성 배우자 가족에 대한 호칭이 '처가, 장인어른, 장모님, 처남, 처형, 처제'라고 부르지만 여성은 남성 배우자 가족에 대 해 '시댁, 아버님, 어머님, 아주 버님, 도련님, 아가씨'라고 높여 부르고 있다.

이 호칭은 거의 일방적으로 여성에 대한 남성 우위를 강조 하고 있으며, 성 평등에 부합하 지 않는 양상을 보인다.

성별에 따른 비대칭적인 가 족 호칭 용어에 대한 문제는 지 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와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 원은 34건이며, 이 중 최다 청 원을 기록한 의견은 '여성'이 결 혼 후 불러야 하는 호칭 개선을 청원합니다. 30,293명이 지 지했다.

대체 가족 호칭이 뭐라고 그 려게 문제로 삼고 별것도 아닌 일로 불편함을 호소하는지 이 해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진 사 람들도 있을 것이다.

호칭어는 단순히 어떤 대상 을 이름 지어 부르는 것이 아니 라 화자와 청자의 친밀도, 위계 표시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인간관계를 설정해 주는 힘을 가진 언어수단이다.

만약 서로를 부르는 말이 화 자와 청자 중 한 사람에게라도 불편함을 준다면 긍정적인 관 계를 형성하기에 어려움이 있 을 것이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 터에서는 상담 사업을 진행하 며 지역의 다양한 가정들이 가

진 문제들을 만나고 있다.

가족 관계에 대한 상담 중 자 녀의 문제행동으로 인한 양육 고민, 원가족에 대한 문제 등과 같은 다양한 호소 내용이 있지 만, 이 모든 문제들은 결국 부부 의 소통 문제가 원인이 되어 파 생되는 것이다.

소통 문제의 원인이 가족 호 칭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불평등에서 시작 된 관계 설정 이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을 까?

앞서 이야기 했듯이 호칭어 는 인간관계를 설정해 주는 힘 을 가진 언어 수단으로 가족 호 칭을 평등하게 짓는다면 부부 사이를 비롯해 사돈 간에도 평 등한 관계로 시작하는 출발점 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다.

2019년 여성가족부의 시행 과제 중 '성 비대칭적 가족 호칭 개선'이 있으며, 국가가 가족 호 칭 개선에 적극적으로 개입하 여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 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국가가 사적인 생활에 너무 개입하는 것이 아 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지 만 가족 호칭 문제는 단순히 '서 로를 부르는 말'에만 국한된 것 이 아니다.

부부 관계 형성의 출발점이 자 가정 내 평등한 관계를 유지 할 수 있는 시작인만큼 가족 호 칭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역할 은 필요하다.

가족 호칭에 대한 사회적으 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국민 모두가 이 주제를 문제로 인식 하고 변화의 물결을 함께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는 포 럼, 캠페인, 미디어 등을 통해 확산시켜야 할 것이다.

더불어 우리와 같은 기관에 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들의 호칭 사용에 대한 변 화를 도와야 할 것이다.

가족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 하며, 지역과 세대, 성별에 따 른 차별이 아닌 차이가 존중하 는 방향 등으로 호칭어를 변경 한다면 평등화된 시대에 걸맞 은 호칭이 마련될 것이라고 본 다.

앞으로의 변화에 건강가정다 문화가족지원센터가 마중물의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하며, 이 제, '장인어른이나 장모님, 시아 버님이나 시어머님'이라고 구 분지어 부르지 말고 '어머님, 아 버님'이라고 다정하게 불러 보 는 것은 어떨까?

현장의 목소리

사회복지사를 바라보는 시선



정 재 영

정신재활시설 디딤터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어느덧 정신재활시설에서 근무를 한 지 9년이 다 되어간다. 근무를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종종 사회복지사 에 대해 물어보고 한다. "사회복지사는 어떤 직업일까요?"

사회복지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지 궁금하여 물어보면 거의 때변이다 시피 듣는 말은 '좋은 일 하는 사람', '좋은 일 하고 돈 받는 사람', '봉사하는 사 람'이다.

분명 사회복지사의 꿈을 키우며 학 교에서 공부를 할 때 사회복지사는 전

문가'라고 배웠지만, 아직까지 우리사 회 속 사회복지사는 그저 봉사자와 비 슷한,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인식 이 일반화 되어 있다.

사회복지사의 사전적 정의는 욕구를 가진 다양한 계층의 문제해결을 돕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단순 지원의 역할과 더불어 사회 조 사 및 복지정책 대안제시까지 다양한 활동을 한다.

사회복지사는 10년 후 전망 좋은 직 업 TOP5안에 선정 되었으며, 사회복지 사 자격증(1급, 2급)을 취득하고 있 는 사람들은 100만 명에 이른다고 한 다. 이렇게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배출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사 회에서 사회복지사를 바라보는 시선 은 단순 자원봉사자로 인식되고 있다.

대중들에게 사회복지사가 자원봉사 자로 여겨지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 게 된다. 사회복지사를 전문직으로 말을 하고 있지만 무분별하게 자격증이 발급되 고 있어 그 의미가 희미하다.

4년제 사회복지학과를 나오지 않더 라도 평생교육원 사회복지 교과목을 이수하면 사회복지 2급 자격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그래서인지 주변에서 '할 거 없으면 사회복지사나 할까 쉽게 딸 수 있더라

데'라는 말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 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이 쉽기 때 문에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로 비유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평 생교육원에서 교육을 받고 사회복지 사로 활동하는 분들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다. 평생교육원에서 별다른 전문 교육과정 없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사 회복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 사 회복지를 심심해서, 다른 걸 할 게 없 어서 하시는 분들 때문에 전문성이 떨 어지고 사회 인식이 바뀌지 않는 것으 로 생각된다.

이렇다 보니 대중들이 바라보는 사 회복지사는 더욱 비전문가로 여겨지 고 있다. "착한 성품만 가지면 사회복지사를 할 수 있잖아, 남들처럼 일을 하고 돈 을 받으면서 소위 '좋은 일'까지 하더니 그런 것치고는 월급을 많이 받는 것 아니냐?"는 식의 이야기들을 한다.

그러나 다른 직업군보다 사회복지사 의 보수 및 복지 처우는 좋은 편이 아 니다. 타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제공 하면서도 우리들의 복지처우는 현실 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사실이 슬플 따 름이다.

여기서 사회복지사들이 하는 혼한 낫두리들을 이야기 해보려고 한다. 첫 째, 좋은 일 한다고, 심지어 존경한다

고 말하지만, 조금 실수하면 대역외인 보다 더 큰 죄를 지는 것처럼 잡아먹으 려고 해요.

둘째, client는 고마워하기보다 당연 하게 생각하고, 오히려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하는데 우리 어디서 위로를 받 아야 하나요.(감정노동, 감정소모)

다양한 이유들로 사회복지사들이 직 업에 대한 소진이 빠르고 이직률도 높 은 것으로 나타난다.

사회복지사 또한 하나의 소중한 인 격체로 존중되어야 한다. 사회복지사 는 자원봉사자가 아니다. 한 부모의 아이일 수도 있고 한 가정 의 책임지고 있는 가장일 수도 있다 는 생각들을 하며 사회복지사를 바라봐 줬으면 한다.

오늘도 다양한 영역에서 국민의 행 복을 위해 열심히 발로 뛰는 사회복지 사들을 응원합니다.

기고를 바랍니다.

- 사회복지 기고를 원하시는 분은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 활동하실 원하시는 분은 전화 (☎043-234-0840~2) 또는 이메일(pcpsw@chol.com)로 문의 바랍니다.

법률복지의 새 장을 여는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사업 안내

법률상담제도는

변호사의 자격을 갖춘 변호인이 충북사회복지협의회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비롯한 서민에게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법률상담 및 정보제공과 법교육, 구조안선과 법률문서작성 등 소송 수입 없이 가능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제공대상

기초수급자,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법률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지역주민,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도움 받을수 있는 분야

근로관계 및 임금, 채권 및 채무, 상속 및 유언, 이혼·전권·양육권, 손해배상, 개인회생 및 파산 등 생활법률 전반입니다.

법률서비스 제공

원명안 변호사 (법무부 인권구조과)가 담당합니다.

서비스 신청은

시 간: 월-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공휴일 제외)
전 화: 043)238-0843 / 이메일: wma7259@naver.com

사무실: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00호 법률상담터



법무부



충청북도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이 달의 법률상식



원명안 변호사

Q. 저는 최근 한 회사에 취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신입 직원이 하는 일이라며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일만 시키고 정식 업무를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A.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2019. 7. 16.부터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됩니다. 직장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조치와 발생 시 조치사항을 취업규칙에 기재하고, 신고하여야 합니다. 법이 시행되면 누구든지 직장내 괴롭힘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업주는 근무장소 변경, 가해자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합니다.

직장내 괴롭힘 사실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의 예시로는 '정당한 이유없이 승진, 보

상, 대우 등을 차별하거나, 부서이동, 퇴사를 강요하는 행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행위, 휴가나 병가 등의 복지혜택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등이 있으며, '집단 따돌림'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이를 위해서 근로복지기본법 제83조에 따른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EAP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 시 해결절차: 사건접수→상담→조사→괴롭힘 사실 확인 시 조치→모니터링

지역사회봉사단



사단으로 위촉되어 매주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오정석 대표는 "봉사자들의 전문적인 재능으로 어르신들과 양보호사에게 위로를 전하고, 앞으로도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봉사활동을 계속 하겠다." 라고 포부를 밝혔다.

지역사회봉사단은 VMS에 가입된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봉사단체로,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 봉사활동이 가능하다. 지역사회봉사단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는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유선(043-234-0840~2) 또는 이메일(cpswww@chol.com)을 통해 문의 가능하다.

해오름공연예술단, 문화·예술 봉사활동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영석) 소속 해오름공연예술단은 지난 5월 3일가족사랑 재가복지센터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대중가요 공연 봉사활동을 하였다. 해오름공연예술단은 2018년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봉

복지정보 제공

[KT&G복지재단]2019년 상생편의의료복지지원(아동) 신청안내

- 신청기간: 매월 1일 ~ 20일, 연중상시 진행
신청대상: 사회복지기관에 소속된 만 18세 이하의 저소득(차상위, 수급, 일반저소득) 아동·청소년
지원내용: 치료비·수술비·재활치료비·보장구 구입 등 의료에 관해 병명 제한 없음. (단, 간병비 제외)
지원금액: KT&G 임직원 모금을 통해 최소보장지원금 300만원 ~ 최대 500만원 지원
신청방법: 매월 20일까지 온라인 사연 신청
온라인 사연신청: 재단홈페이지(www.ktngwelfare.org) > 사업안내 > 인터넷복지사업 > 상생편의의료복지지원사업 > 사업안내 웹 페이지 하단의 [의료복지지원 신청] 버튼 클릭
참고: http://www.welfare.net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48명(예산범위 내 조정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당해연도 중위소득 80%이하 저소득 가정
지원금액: 1인 최대 300만원 한도 내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방법: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을 통해 신청서류 mailed 제출
개인신청 불가 (사회복지사업 및 기타 사회복지 활동을 하는 비영리단체, 병원, 학교 등)
신청서류: 공문1부, 사업신청서1부, 지원신청서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 3자 제공동의서 1부, 의료적 상황 확인 서류: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아동기준)가족관계 증명서 1부, 가구 소득 유형에 따른 증명서류(해당자)
신청서 및 제안서 서식은 재단 홈페이지(공공지사함)에서 다운로드 사용
참고: http://www.kidsfuture.or.kr

- 지원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를 우선지원(4인가구 기준 월소득 4,614,000원 이하)
지원내용: - 치료비(간병비 포함)지원 - 재활의료비, 보조기구 구입비, 재활약제비 지원 - 건강유지·증진을 위한 생활비 지원(생활비 단독 지원 불가)
신청방법: 입원,통원하는 의료기관 사회복지사 또는 담당자에게 문의
문의사항: 한국의료지원재단: 02-6212-9753, 02-6212-9755
참고: http://support.komaf12.org

[한국사회복지관협회]성모자애복지관 개관20주년 기념 장애인식개선 UCC 공모전

- 공모주제: 장애와 관련한 긍정적인 모든 주제 가능
참가대상: 청소년부문(초·중·고 학생), 일반부문(대학생 이상)
응모자격: 공모자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식품으로 개인(팀)당 1작품
접수기간: 2019년 5월 13일(월) ~ 6월 14일(금) 17시/기간 내 도착분만 인정
접수방법: 이메일접수(smwell9581@naver.com)
접수파일: 공모전 참가신청서 및 참가서약서(성모자애복지관 홈페이지 참조)
발표일시: 2019년 9월 30일(월) 17시(홈페이지 공지)
문의: 02-3410-8853
참고: https://www.smwelfare.or.kr

[한국의료지원재단]저소득 전자산업 재해 근로자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전자업계 중소기업 전·현직 근로자로 근무 중 재해를 입거나 질병이 발생한 근로자 - 산재보험 대상자와 비대상자 모두를 포함(산재승인 여부 무관)
지원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를 우선지원(4인가구 기준 월소득 4,614,000원 이하)
지원내용: - 치료비(간병비 포함)지원 - 재활의료비, 보조기구 구입비, 재활약제비 지원 - 건강유지·증진을 위한 생활비 지원(생활비 단독 지원 불가)
신청방법: 입원,통원하는 의료기관 사회복지사 또는 담당자에게 문의
문의사항: 한국의료지원재단: 02-6212-9753, 02-6212-9755
참고: http://support.komaf12.org

[푸르메재단]2019 회귀난치어린이 지원사업(2차)

- 접수기간: 2019년 5월 1일 ~ 6월 21일
지원대상: 만18세 미만 회귀난치 어린이(신정서 내 코드명 기재)
지원내용: - 지원항목: 재활치료비, 보조기구, 치료기구, 의료비, 약제비 - 지원금액: 1인당 최대 400만원 지원 - 지원기간: 2019년 4월 ~ 2020년 7월 (최대 10개월)
신청방법: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신청
신청발표: 2019년 7월 3일(예정)
지원금 사용: 선정일로부터 10개월 이내(2019년 7월~2020년 4월)
문의: 배분사업팀 안선영간사(02-6395-7001 / sy0121@purme.org)

[KT&G복지재단]2019년 행복가정학습지원(아동) 신청안내

- 신청기간: 매월 1일 ~ 20일, 연중상시 진행
신청대상: 아동·청소년사업 수행중인 사회복지기관에 소속된 저소득(차상위, 수급, 일반저소득) 가정의 학령기 아동·청소년(만7세 이상 ~ 만18세 이하)
지원내용: 학습과 관련된 물품 구입비 10만원 지원
지원가능물품: 학습용품, 문제집, 일반도서, 교복, 책가방, 체육복(학교지정), 실내화 등
신청발표: 매월 마지막주 중 발표
신청방법: 매월 20일까지 온라인 사연 신청
참고: http://www.ktngwelfare.org/business/happy

[아이들과 미래재단]2019년도 아동·청소년 의료비 지원사업 '러브아이'대상자 모집

- 지원내용: 교액의 의료비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게 의료비 지원을 하는 사업
접수기간: 2019년 2월 ~ 11월(상시접수)
지원대상: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만

[희망나눔 주주연대] 희망나눔 의료/생활비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 전자업계 중소기업 전·현직 근로자로 근무 중 재해를 입거나 질병이 발생한 근로자 - 산재보험 대상자와 비대상자 모두를 포함(산재승인 여부 무관)

자원 봉사자 모집

- 경로식당 배식봉사: 관리센터: 음성군노인복지관, 활동기간: 5.1 ~ 6.30, 전화번호: 043-883-2470
이미용 봉사: 관리센터: 충청북도공무원체육관, 활동기간: 5.1 ~ 6.30, 전화번호: 043-216-0031
어르신 한글교실 재능기부: 관리센터: 청주정신건강센터, 활동기간: 5.1 ~ 6.30, 전화번호: 043-284-0103
초·중등 학습지도: 관리센터: 푸른꿈지역아동센터, 활동기간: 5.1 ~ 6.30, 전화번호: 043-238-3786
장애인 활동 프로그램 보조: 관리센터: 해원장애인종합복지관, 활동기간: 5.1 ~ 6.30, 전화번호: 043-295-7505
학습정서지원 멘토링 봉사: 관리센터: 충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활동기간: 5.1 ~ 6.30, 전화번호: 043-857-5960
'세발자전거' 멘토 모집: 관리센터: 어린이재단 청주사회복지관, 활동기간: 5.1 ~ 6.30, 전화번호: 043-250-1226
청주YWCA 행정보조: 관리센터: 청주YWCA, 활동기간: 5.1 ~ 6.30, 전화번호: 043-265-3700

- 도서관 도서 정리: 관리센터: 충청북도교육도서관, 활동기간: 5.1 ~ 6.30, 전화번호: 043-267-4590
'자원봉사학교' 참가자 모집: 관리센터: 충북장애인재활협회, 활동기간: 5.1 ~ 6.30, 전화번호: 043-252-9720

지역사회봉사단 모집

관리센터: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활동기간: 연중
전화번호: 043-234-0840~2
*자료출처: www.vms.or.kr

Advertisement for '신바람난다, 기초연금' (It's exciting, basic pension). Features an elderly couple and text: '어르신들의 바람을 신바람으로!', '신바람난다, 기초연금', '대상: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하위 70% (2019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기준 137만원, 부부가구 219.2만원)', '신청: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읍·면 사무소)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1355)'. Includes NPS 국민연금공단 logo.

복/지/만/평

한국인?

이창신 www.bokmani.com



자신의 나라에서 외국인 행세를 하는 검은머리 외국인

남의 나라에서 평생을 헌신한 파란눈의 한국인



60여년간 고아와 장애인을 위해 헌신하신故 말리 홀트 여사를 추모하며...